

##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효능감이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임 회 경<sup>†</sup>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 탐색 행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 진로 상담 개입에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체 1131명의 대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남성성, 여성성의 특성을 구별하기 힘든 양성성, 미분화 그룹을 제외한 468명(남자 215, 여자 25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남성성은 진로흥미의 현실형, 진취형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여성성은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에서 유의미하게 주효과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흥미의 관습형에서만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 흥미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진로 흥미의 현실형에서는 남성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은 설명량을 보였고, 관습형에서는 여성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이 설명해주었다. 진취형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예술형, 사회형에서는 여성성이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 정체감, 진로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흥미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회경,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Tel : 02) 425-4661, E-mail : tsquare@dreamwiz.com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 동안 가장 어려운 과업이다. 어떠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전반에 걸쳐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다. 이를 반영하듯이, 연세 상담센터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1030명중 남자 51.1%, 여자 54.7%가 진로 문제를 답했다. 또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진로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33.6%로 역시 1위로 나타났다(연세상담연구, 2004).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흥미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게 돕는 것은 진로상담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많은 연구들이 흥미가 진로결정 시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Holland, 1992; Lent & Hackett, 1994). 진로 흥미는 “진로 관련 행동, 직업을 고려함에 있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무관심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 상담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흥미는 효능감과 강한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Barak, Shiloh, & Haushner, 1992; Hackett, Betz, O'Halloran, & Romac, 1990), Gottfredson (1981)이 제시한 타협과정에서 성 유형, 명성과 함께 중요한 진로의사결정의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듯 진로 흥미는 진로 성숙, 진로 결정, 그리고 과업 수행에 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즉, 흥미는 진로 행동과 관련하여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이며, 전공 선택,

직업 선택 등 진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직업을 결정하는 시기인 대학생들의 흥미 연구는 필수적이다.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에 관한 여러 유형의 이론 가운데, Holland의 주장이 가장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Osipow, 1990; Salmone, 1996). 특히, Holland(1992)는 진로 흥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직업 성격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직업에 대한 성격은 여섯 가지 차원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으로 설명되며, 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흥미구조 모델로 수십년동안 지배적으로 연구되었고(Borgen, 1986), 진로 상담에서 개입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흥미 측정도구였다(Isaacson & Brown, 2000)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른 직업에 종사해왔고 진로 흥미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남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 성격, 능력 보다는 성역할 관련 변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Wolf & Betz, 1981).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Nevill & Schlecher, 1988). 그러나 점차로 남성지배적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Betz & Fizerald, 1987), 여성지배적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Betz, Heesacker & Shuttlesworth, 1990). 따라서 이제까지는 진로발달 분야에 있어 생물학적 성차가 강조되어왔으나, 이보다는 좀 더 개인적 변인인 성역할 정체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Matsui, 1994).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적 정체감의 독특한 측면으로서 사회가 그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혹은 흥미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휘숙, 1999).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성, 여성성이 단일차원의 양 끝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Bem(1974)은 남성성, 여성성이 독립적인 차원임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역할 정체감중 남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남성다수 직업인 비전통적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여성다수 직업인 전통적 직업에 흥미를 보였다(Gianakos & Subich, 1998). Farmer (1985)와 Bem(1975)도 진로 지향적 여성은 도구성(남성성)과 표현성(여성성) 둘 다 많이 가진 양성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성성 집단에서 비전통적인 진로의 선택은 25%, 전통적 진로 선택은 75%였고, 양성적 집단의 65%가 비전통적 진로를 선택했다는 연구도 있다(Clarey & Sanford, 1982). 대체로, 남성성은 여성들의 비전통적 영역에서 진로선택과 관계가 있으며(Hackett, 1985), 남성성 유형의 여성들은 여성성 유형의 여성들보다 직업적 흥미와 일치한 진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Wolfe & Betz, 1981).

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기존에 성역할 정체감과 직업 흥미, 선호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역할 정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역할 정체감은 내가 어떤 성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로 흥미에 있어 자신과 일치하는 성역할 영역에 있어 더 강한 선호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 흥미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진로 흥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효능감이 있다. 최근 직업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진보중의 하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설명이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자아효능감의 개념은 사회인지 이론(SCCT)의 기초요소로서 Bandura에 의해 소개된 이후, 오랫동안 자기효능감 기대를 진로 흥미발달 관련하여 연구하였다(Bandura, 1977; Bandura, 1986).

기존에 진로 효능감과 진로 흥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Betz, Borgen, & Harmon, 1996; Lapan, Boggs, & Morrill, 1989; Lenox & Subich, 1994; Lent, Lopez, & Bieschke, 1993; Luzzo, Hasper, Albert, Bibby, & Martinelli, 1999). 이들 연구의 다수는 자기효능감과 흥미 관계를 보기 위해, 한 두 개의 특정 영역(수학, 과학 등), 혹은 특별한 유형의 과업을 통해 조사되었다. Lent, Brown과 Larkin(1986)은 공학/과학계열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성취, 전공의 지속성간의 관련을 연구하였는데, 공학계열의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과 학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중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학계열 전공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적과 학문지속성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Lent, Brown, & Larkin, 1987). Post-Kammer와 Smith(1985, 1986)는 전통적 남자와 여자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에서 성차를 발견했으며, 자기 효능감과 직업적 흥미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했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흥미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ahn(2000)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자기 효능감이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과업과 연관된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빈번하게 나타났다(Barak, Shiloh, & Haushner, 1992; Hackett, Betz, O'Halloran, & Romac, 1990; Luzzo et al., 1999). 따라서, 진로결정 효능감은 개인의 흥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직업 선택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효능감에 따라 흥미도 달라지며, 탐색활동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흥미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진로 흥미, 성역할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을 볼 때 진로 흥미는 진로 행동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역할 정체감과 각각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정체감이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진로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두 변인이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진로 흥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기존에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조아미, 2002),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진로 흥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흥미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있었으나(지용근, 2004), 아직까지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 흥미의 중요한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호작용을 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진로 흥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아가 진로 상담에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진로 흥미에 영향을 주

는 두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 흥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각각이 진로 흥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진로 흥미와의 인과관계를 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 흥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 상담에 있어, 흥미와 관련하여 성역할정체감이나 진로 효능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진로와 흥미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시기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Y대, S대, H대, 지방 소재 S대, H대, C대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총 1131개가 회수되었으나, 연구의 목적인 성역할 정체감과 효능감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남성성, 여성성의 두 차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다 높은 양성성 그룹과 둘다 낮은 미분화 그룹은 평균을 기준으로 제외시켰다. 그 결과 분석에는 468개가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08명, 여자 253명이었고, 설문에 응한 대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0-35세였다.

측정 도구

**성역할 정체감 측정 도구**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m(1974)의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하여 고안한 검사이다. 전체 60 문항 중에서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 성별의 특징을 나타내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 10문항과 바람직하지 않는 특성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은 질문지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반응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질문지는 likert식 7점 척도로 각 문항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까지 고르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남성성 .91, 여성성 .84, 사회적 바람직성 .75이고 반분신뢰도는 남성성 .91, 여성성 .79, 사회적 바람직성 .78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남성성 .89, 여성성 .87, 사회적 바람직성 .78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Betz 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 해결 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이은진(2001)이 보고한 단축형의 25문항 합산 점수의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응답은 ‘전혀 확신이 없다(1)’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10)’에 이르는 10개의 구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해당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하며, 전체 점수는 5개의 하위척도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흥미 측정 도구**

직업흥미는 특정 직업이나 광범위한 직업분야에 대한 흥미라고 정의한다. 직업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에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에 의뢰해 제작한 직업선호도검사(2001)의 S형(흥미검사)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활동, 유능성, 직업, 선호분야, 일반성향의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흥미검사는 Holland 의 6각형 모형을 기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하위척도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관습형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활동 영역 42문항, 유능성 영역 30문항, 직업 영역 48문항, 선호분야 영역 30문항, 일반성향 영역 42문항의 총 19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하위척도들 가운데 직업 흥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영역 42문항과 직업 영역 48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이현주, 1998). 채점 시에는 다음의 각 유형별 문항에서 “좋다”에 응답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경향이 높은 것이다. 흥미검사의 내적 신뢰도는 .89에서 .91로 평균 .90 수준을 유지하였다. 타당도도 각 하위척도별 상관관계와 요인분석결과 구성요인간 상관관계는 낮고, 구성요인간 응집력은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이채희, 2001).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현실형 .84, 탐구형 .90, 예술형 .87, 사회형 .82, 진취형 .85, 관습형 .87이다.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주효과,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 흥미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독립변인의 수준별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분석 결과, 남성성은 현실형( $r=.139, p<.01$ ), 진취형( $r=.355, p<.01$ )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예술형( $r=-.100, p<.05$ ), 관습형( $r=-.177, p<.01$ )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여성성은 예술형( $r=.142, p<.01$ ), 사회형( $r=.188, p<.01$ ), 관습형( $r=.300, p<.01$ )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진취형( $r=-.152, p<.01$ )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취형( $r=.100, p<.05$ )에서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관습형( $r=-.165, p<.01$ )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 흥미의 차이**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 흥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1. 남성성, 여성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흥미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남성성	-							
여성성	-.642**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29**	-.059	-					
현실형	.139**	-.131**	-.049	-				
탐구형	-.078	.046	-.022	.324**	-			
예술형	-.100*	.142**	.003	-.003	.114*	-		
사회형	-.077	.188**	-.011	-.113*	-.075	.271**	-	
진취형	.355**	-.152**	.100*	-.007	-.157**	.066	.342**	-
관습형	-.177**	.300**	-.165**	-.020	-.010	-.003	.246**	.242**

\*  $p<.05$  \*\*  $p<.01$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의 남성성, 여성성의 수준을 보기 위하여 남성성이 평균( $M=90.17$ ,  $SD=16.12$ )이상 높고, 여성성이 평균( $M=93.76$ ,  $SD=14.68$ )이하인 집단은 남성성을 가진 것으로, 여성성이 평균이상 높고, 남성성이 평균이하인 집단은 여성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둘 다 평균 이상이거나, 둘 다 평균 이하인 그룹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M=157.06$ ,  $SD=31.73$ )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주효과,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 흥미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는 탐구형을 제외한 현실형( $F_{1,466}=20.473$ ,  $p<.01$ ), 예술형( $F_{1,466}=5.116$ ,  $p<.05$ ), 사회형( $F_{1,466}=7.561$ ,  $p<.01$ ), 진취형( $F_{1,466}=45.794$ ,  $p<.05$ ), 관습형( $F_{1,466}=14.754$ ,  $p<.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

표 2.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 흥미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변량인	SS	df	MS	F	ES
현실형	성역할 정체감	205.349	1	205.349	20.473**	.043
	진로결정효능감	45.794	1	45.794	4.566*	.010
	상호작용	2.259	1	2.259	.225	.000
탐구형	성역할 정체감	1.285	1	1.285	.073	.000
	진로결정효능감	2.365	1	2.365	.134	.000
	상호작용	59.199	1	59.199	3.35	.007
예술형	성역할 정체감	86.815	1	86.815	5.116*	.011
	진로결정효능감	.179	1	.179	.011	.000
	상호작용	17.928	1	17.928	1.056	.002
사회형	성역할 정체감	97.417	1	97.417	7.561**	.016
	진로결정효능감	.224	1	.224	.017	.000
	상호작용	9.728	1	9.728	.755	.002
진취형	성역할 정체감	498.121	1	498.121	31.813***	.065
	진로결정효능감	5.052	1	5.052	.323	.001
	상호작용	3.604	1	3.604	.230	.001
관습형	성역할 정체감	235.151	1	235.151	14.754***	.031
	진로결정효능감	105.970	1	105.970	6.649*	.014
	상호작용	37.120	1	37.120	2.329	.005

\*  $p<.05$  \*\*  $p<.01$  \*\*\*  $p<.01$

른 주효과는 관습형( $F_{1,466}=6.649, p<.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집단에 대한 진로 흥미의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실형, 진취형에서는 여성성( $M=2.50, SD=5.84; M=7.48, SD=4.20$ )보다 남성성( $M=3.73, SD=3.51; M=9.64, SD=7.48$ )이 높았다. 그러나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에서는 남성성( $M=6.83, SD=4.28; M=6.99, SD=3.43; M=3.96, SD=3.73$ )보다 여성성이 높았다( $M=7.68, SD=3.96; M=7.98, SD=3.72; M=5.70, SD=4.26$ ).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은 집단( $M=4.33, SD=3.84$ )이 낮은 집단( $M=5.56, SD=4.34$ )보다 관습형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 흥미에 일부 유의미

한 차이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흥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인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진로 흥미유형에서 현실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 1모형의 유일한 변인인 남성성은 약 1.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_{1,466}=8.965, p<.01$ ). 제 2모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여 약 2.8%를 설명했다( $F_{2,465}=4.100, p<.05$ ). 예술형, 사회형에서는 여성성이 유일한 예언변인으로 예술형의 약 1.9%( $F_{1,466}=8.971, p<.01$ ), 사회형의 약 3.5%( $F_{1,466}=16.315, p<.001$ )를 각

표 3.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B	R <sup>2</sup> (adj-R <sup>2</sup> )	ΔR <sup>2</sup>	F
현실형	1 남성성	.139	.019(.017)	.019	8.965**
	2 남성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71 -0.99	.028(.024)	.009	4.100*
예술형	1 여성성	.139	.019(.017)	.019	8.971**
사회형	1 여성성	.186	.035(.033)	.035	16.315***
진취형	1 남성성	.355	.116(.124)	.126	65.126***
	2 남성성 여성성	.435 .124	.135(.131)	.009	4.694*
	1 여성성	.301	.090(.088)	.090	45.335***
관습형	2 여성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90 -1.44	.111(.107)	.021	10.581**

\*  $p<.05$  \*\*  $p<.01$  \*\*\*  $p<.01$



각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진취형에서는 남성성이 제 1모형의 유일한 변인으로, 약 11.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_{1,466}=65.126, p<.001$ ). 제 2모형은 남성성, 여성성이 예언변인으로, 약 13.5%의 설명량을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F_{2,465}=4.694, p<.05$ ). 관습형에서는 여성성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제 1모형의 약 9.0%의 설명량을 가지며( $F_{1,466}=45.335, p<.001$ ), 제 2모형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추가로 2.1%의 설명량을 가지며, 전체는 약 11.1%의 설명량을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F_{2,465}=10.581, p<.01$ ).

## 논 의

본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흥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진로 상담 장면에서 유용성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탐구형을 제외한 진로 흥미의 전 영역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가진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진로 흥미의 유형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탐구형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은 직업 성격상 대부분 연구 직종이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성역할의 차이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준별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현실형, 진취형의 흥미가 높았는데, 이는 현실형, 진취형을 남성성의 흥미영역이라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ent, Brown & Hackett, 1994).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남성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 인식되는 직업의 흥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역할 정체감의 여성성의 경우에는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에서 남성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성이 전통적 직업 흥미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이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ianakos & Subich, 1998; Lent et al, 1994; Tokar & Jome, 1998). 이는 현대 사회의 직업 구조도 많이 바뀌고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성역할과 관련한 직업 인식은 많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진로 흥미의 관습형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흥미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들(Lenox & Subich, 1994; Lent, Lopez, & Bieschke, 1993)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효능감에 따른 흥미의 차이는 진로효능감이 낮을수록 관습형의 흥미가 높았다. 이는 관습형이 예술형, 진취형 등의 기타 변인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유형이므로,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좀 더 다양하고 변화로운 흥미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을 추론하게 한다. 진로 효능감이 직업탐색, 흥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도(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Lent, Brown & Larkin, 1987), 효능감이 높을수록 좀 더 다양하게 직업탐색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낮은 효능감과 관습형 사이에 정의를 내리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우며,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세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이 유의미하였고,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두 변인이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진로 흥미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로 흥미를 설명하는 변인이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성별, 전공, 학년 등의 인구학적 변인, 혹은 성격, 능력 등의 기타 변인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여성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흥미를 예측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실형에서는 남성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약 2.8%의 설명량을 가졌고, 예술형과 사회에서는 여성성이 약 1.9%, 3.5%의 설명량을 가졌다. 진취형에서는 남성성, 여성성이 약 13.5%의 설명량을 가졌으며, 관습형에서는 여성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약 11.1%의 설명량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 여성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흥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 흥미의 각 영역에 따라 이들 변인끼리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 흥미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명량이 크지 않은 이유는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기타 관련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성역할 정체감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정진선, 2002), 진로결정 효능감이 상호작용효과를 야기하기보다 성역할정체감과 흥미 사이를 촉진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방법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 결정시 중요한 고려 변인인 흥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동안 진로 흥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대부분 해외 연구들이었다. 또한, 국내 연구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었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흥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흥미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아울러 진로 상담 영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라 어떻게 진로 흥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으로써 각각의 흥미에 이들이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변인들 간의 뚜렷한 상호작용은 밝히지 못했으나, 성역할 정체감과 효능감의 상호작용을 흥미와 관련시켜 새롭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변인들에 따라 흥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변인들이 흥미에 대해 각각 얼마나 설명량을 가지는 지 볼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진로 흥미 연구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 흥미와 관련하여 많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변인 외에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전공, 학년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 흥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양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변인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진로 흥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밝힐 뿐 아니라, 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통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자료수집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특히,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계열, 공학계열로의 전공 편파현상이 심각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공이 흥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전공을 고려하여 연구대상들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 흥미의 척도에서 직업명이 '부모'와 같은 오래된 표현의 것이 일부 있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그 직업에 대해 중립적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부적절한 경향이 있다. 과거에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꾼 것처럼, 좀 더 현대식의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진로 흥미와 관련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전공, 학년 등도 진로 흥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나아가, 진로 흥미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로 흥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응답자가 흥미가 있다고 답하는 것과 실제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1998). 직업선택도 검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유영권, 조영아, 정승진, 박시현 (2004). 신입생의 진로의식 연구, 연세상담연구, 20, 연세대학교 연세상담센터.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353-366.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체희 (2001). 직업선택도검사 타당화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 정진선 (2001).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유형, 한국심리교육학회지, 15, 135-155.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1-108.
- 지용근 (2004).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71-8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ak, A., Shiloh, S., & Haushner, O. (1992). Modification of interests through cognitive restructuring: Test of a theoretical model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90-497.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tz, N. E., Borgen, F. H., & Harmon, L. W. (1996). *Skills Confidence Inventory: Applications and technical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Betz, N. E., & Fitzer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Press.
- Betz, N. E., Heesacker, R. S., & Shuttlesworth, C. (1990).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and realism of Major and occupational plans in college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69-276.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6.
- Borgen, F. H. (1986). New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interests. In W. B. Walsh & S. H. Osipow(Eds.), *Advances in vocational psychology: The assessment of interests*. Hillsdale, NJ: Erlbaum.
- Burnett, J. W., Anderson, W. P., & Heppner, P. P. (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23-326.
- Clarey, J. H., & Sanford, A. (1982). Female career preference and androgyny.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0*, 258-264.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an and m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Gianakos, I., & Subich, L. (1988). Student sex and sex role in relation to college major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59-268.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1985). The role of mathematics self-efficacy in the choice of math-related majors of college women and men: A path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47-56.
- Hackett, G., Betz, N. E., O'Halloran, M. S., & Romac, D. S. (1990). Effects of verbal and mathematics task performance on task and career self-efficacy and interes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9-177.
- Holland, J. L.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2nd ed.). Odesa, FL: Psychology Assessment Resources.

- Lapan, R. T., Boggs, K. R., & Morrill, W. H. (1989).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investigative and realistic general occupational themes on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76-182.
- Lenox, R. A., & Subich, L.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302-313.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 (1987). Comparison of three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in predicting career and academic behavior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nsequence thin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3-29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Sociocognitive mechanism of personal agency in career development: Pantheoretical prospects, In M. L. Savics & R.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77-101.,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Lent, R. W., Lopez, F. G., & Bieschke, K. J. (1991). Mathematics self-efficacy: Sources and relation to science-based career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24-430.
- Lippa, R. (1998). Gender-Related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The importance of the people-things dim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996-1009.
- Luzzo, D. A., Hasper, P., Albert, K. A., Bibby, M. A., & Martinelli, E. A. (1999). Effects of self-efficacy-enhancing interventions on the math/science self-efficacy and career interests, goals, and actions of career undecided college students. In Issaccson, L. E, & D. Brown (Eds.),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Allyn and Bacon.
- Nevill, D. D., & Schlecher, D. T. (1988). The relationship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 Behavior, 45*, 177-184.
- Osipow, S. H. (1990). Convergence in theories of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Review and prospe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122-131.
- Post-Kammer, P., & Smith, P. (1985).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consideration and interests of eighth and ninth grad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251-263
- Post-Kammer, P., & Smith, P. (1986). Sex differences in math and science career self-efficacy among disadvantaged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89-101.
- Ryan, J. M., Tracey, T. C., & Rounds, J. B. (1996). Generalizability of Holland's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across ethnicity,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330-337.
- Salmone, P. R. (1996). Tracing Super's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 40-year retrospectiv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167-184.
- Tokar, D. M., Vaux, A., & Swanson, K. L. (1995). Dimensions relating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57-74.
- Tokar, D. M., & Jome, L. M. (1998). Masculinity, Vocational interests, and Career Choice

Traditionality: Evidence for a Fully Mediate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424-435.

Wolfe, L. K., & Betz, N. E. (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43-55.

원고접수일 : 2006. 4.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6. 6. 16.

게재결정일 : 2006. 6. 22.

##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vocational interest

Hee-Kyung Lim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vocational interest. 1131 data of university students going through the important period of career decision were collected. After data screening process, 468 data(male: 215, female: 253) were used for analysis. Two-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wo-way ANOVA showed that the main effect of masculinity of gender role identity on Realistic and Enterprise types of vocational interests was significant. The main effect of femininity of gender role identity on Artistic, Social, and Conventional types of vocational interests also appeared significant. However, the interaction of gender 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sculin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were the strongest predictors of Realistic type, and the feminin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were the most powerful ones of Conventional type of vocational interests. The effects of the masculinity and the femininity on Enterprise type, and the femininity on Artistic and Social type were greatest. Based on th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gender-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ocational interest